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지원 개선방안

과제책임자 이미정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54 / E-mail: mjnglee@kwidimail.re.kr)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예방교육 강화방안

초록

■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연루된 성착취 범죄가 드러나면서, 이의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는 유포 기간에 비례하는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의 유포 확산 방지와 가해자 검거를 위해서 피해 아동·청소년이 신속히 신고하고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면접과 언론 자료를 분석하고 이들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교사 등 아동·청소년 관련자 대상 교육, 부모상담 확대 및 보호자 대리인 지정,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강화를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음.

1. 배경 및 문제점

- ①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연루된 성착취 범죄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②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을 반영하여 이와 관련한 후속 대책과 입법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③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착취물의 유포 피해 영상물의 유포 확산 방지와 가해자 검거를 위해서 피해 아동·청소년이 신속히 신고하고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④ 인터넷 매체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관심도 증가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매체와 플랫폼 운영에 있어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범죄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면이 있음.

- ④ 수사나 문제해결 과정에서 부모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임. 피해 아동·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보호자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데,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함.
- ④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려고 하였음.

2. 분석결과

④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양상

- ▶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온라인 성폭력이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기기와 문화에 익숙한 미성년자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성착취 범죄 위험에 취약한데, 가해자는 가족관계가 소원하거나 사회적 고립된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이들을 통제하며 착취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 ▶ 온라인 성착취 피해의 양상은 성적이미지 합성 및 유포,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 개인정보 확보 후 협박, 아르바이트 제의와 협박, 성매매와 온라인 성착취 등으로 나타남.
- ▶ 모바일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아동·청소년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놀이문화를 갖고 있음.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사람과의 소통이나 친구 맺기에 거부감이 없으며, 이런 이유로 온라인상 범죄에 대해서 경계심이 약하다고 할 수 있음.
- ▶ 가족관계가 온라인에서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피해 인지가 낮은 편임. 자신이 성착취 피해자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며,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상대를 남자친구로 생각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경계심 없이 지내다 협박을 받고서야 문제로 인식하게 되기도 함. 성적 이미지와 영상을 가해자에 보낸 피해자는 심한 자책감에 시달림.
- ▶ 피해 아동·청소년은 영상물 유포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는데, 이러한 심리적 고통은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됨.
- ▶ 피해 아동·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보호자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지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 피해 아동·청소년은 온라인 성착취 피해 자체로 힘들어하지만, 주위의 소문과 편견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함. 친구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착취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진 친구들의 부정적 시선에 시달림.

<표 1>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사례

사례	주요 피해내용
1 ¹⁾	가해자1은 SNS로 가해자2에게 '17세 여자를 만날 생각 있느냐. 내 노예인데 스킨십은 다 해도 된다'고 하며 해당 여성 청소년의 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함. 이를 수용하여 가해자2는 피해자(17세)를 대형마트 주차장, 모텔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가해자1에게 전송함. 가해자1은 해당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해당 영상을 보내 협박함.
2 ²⁾	가해자는 채팅앱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15세)과 모텔에서 성관계한 후 살해함. 숨진 피해자를 신고한 건 채팅앱에서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알선하던 일당이었음.
3 ³⁾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모바일 채팅앱에서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음. 돈을 보내겠으니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선물을 보내겠으니 주소를 알려달라고 함. 이후 선정적 이미지와 영상 촬영, 가학적 행위에 대한 요구가 시작되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두려움에 피해자는 보름 동안 80여 개의 영상을 보냄.
4 ⁴⁾	자신을 10대 남자라고 밝힌 문화상품권 판매자가 신원확인이 필요하다는 초등학교 여아에게 학교 앞·뒷면의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여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비밀로 나체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함. 피해자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들이 개입하여 별다른 피해 없이 상황이 마무리됨.
5 ⁵⁾	초등학교 피해자(12세)는 랜덤채팅에서 만난 사람이 이름, 주소, 나이를 물었고 이를 알려준 후 협박을 당하며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게 됨.
6 ⁶⁾	피해자(13세)는 스마트폰 게임 채팅방에서 '알몸을 보여주면 돈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받음. 사진을 보내자 점점 선정적인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음. 피해자는 총 11회에 걸쳐 사진 5장과 영상 38건을 전송했고, 가족, 친구에게 알린다는 가해자 협박에 약 22만원을 보내기도 함.
7 ⁷⁾	20대 피해자는 고교 1학년 때 부모님의 잦은 불화와 알코올중독자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가출함. 가출 후 밥도 먹지 못하고 잠잘 곳이 없어 공중화장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함. 성매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 떠올랐음.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조건만남을 시작하게 됨. 성매매수자에게 감금당하거나 폭행당했지만, 불법적 일을 했다는 생각에 신고하지 못함.
8 ⁸⁾	피해 청소년 C양은 '용돈 12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성매매수자를 만남. 이후 성매매수자는 피해자의 SNS계정으로 차 안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 "이거 너 맞지? 나랑 또 안 만나면 네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한다"고 협박함. 영상 공개가 두려워 성매매수자 요구에 응하게 되었고, 성매매까지 강요당하게 됨.
9 ⁹⁾	고교 2학년 피해자는 랜덤채팅앱으로 성인남성과 친밀한 사이가 됨. 시간이 지나면서 성적 요구가 시작되었고 관계 단절이 두려워 요구에 응하기도 함. 부모가 이러한 대화 내용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됨. 피해자는 고소하려 하지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10 ¹⁰⁾	동성애자 채팅앱에서 만난 사람에게 보냈던 사진과 영상을 보냈던 중학생 피해자는 촬영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음. 레즈비언이라는 신상정보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함.

1) 세계일보 2020.05.14.일자. 국민일보 2020.05.21.일자.

2) 경향신문 2020.04.25.일자. 국민일보 2015.3.27.일자.

3) 중앙일보 2020.04.05.일자.

4) 세계일보 2020.03.23.일자.

5) 경향신문 2020.04.02.일자.

6) 경향신문 2020.04.02.일자.

7) 세계일보 2019.07.07.일자.

8) 세계일보 2019.07.07.일자.

9) 한겨레 2019.06.24.일자.

10) 한겨레 2019.06.24.일자.

사례	주요 피해내용
11 ¹¹⁾	지적장애 아동(13세)은 스마트폰 액정을 실수로 깨뜨려 엄마에게 혼날까 두려워 가출함. 채팅앱으로 재워줄 사람을 찾았는데 가출 일주일 만에 6명 남성에게 성폭행당함. 하지만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를 받음.
12 ¹²⁾	가해자(27세)는 인터넷 채팅 '버디버디'로 자신이 15살 중학생이라며 피해자(13세)에게 접근하여 꾸준히 온라인 채팅을 하며 친해진 후 '직접 만나자'라고 제안함. 아무 의심 없이 가해자 집으로 찾아간 피해자를 묶고 나체를 촬영함. 이후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함.
13 ¹³⁾	20대 초반에 피해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트위터 구인 글을 보고 연락했는데, '매칭남'과 만나서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는 일 정도로 생각했지만 나체 사진을 요구했고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말에 속아 몇 장을 보냄. 이후 피해자의 SNS 친구목록으로 영상을 보내겠다는 협박이 시작되었고,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여러 곳에 ○○녀로 지칭하며 피해자 사진을 유포함.
14 ¹⁴⁾	20대 여성 피해자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폰 알바'를 구한다는 트윗 글을 보고 연락했음. 남성을 만나 간단히 밥 먹고 시간을 보내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음.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서 얼굴 사진, 주민등록증 등을 보내고, 이후 나체 사진, 가학적 행위를 담은 영상 등을 보내게 됨.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은 물론, 전화번호, 집 주소까지 공개됨.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지원 현황

<표 2>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지원기관

기 관	지원서비스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긴급 전화 상담, 전문기관 연계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 아동 수사, 상담, 의료, 법률, 심리지원 통합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온라인으로 피해 상담 및 정보제공
전국 성폭력상담소	상담, 의료, 법률 연계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및 정보제공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상담지원, 수사와 법률서비스 연계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격리보호지원, 상담

- ▶ 피해사례 접수 경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아동·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상에서 성착취 피해 지원 기관의 홍보물 등을 통해 상담 문의가 들어오거나, 부모가 인지하여 상담·신고, 학교 내 Wee센터나 학교폭력 담당이나 상담 선생님이 학생 피해에 대한 대처나 신고에 대해 문의함.

11) 경향일보 2020.04.25일자. 노컷뉴스 2016.05.13.일자.

12) 내일신문 2020.04.17.일자. 윤정숙·이태한·김현숙(2019).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 한겨레 2019.11.25.일자.

14) 한겨레 2019.11.25.일자.

- ▶ 아동·청소년 온라인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춘 단일 기관이 부재하기에, 내담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관 간 연계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 ▶ 삭제 지원기관의 중심 업무는 피해 경로를 파악하고, 신속한 삭제를 위해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심의가 필요한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함. 이외, 내담사례를 의뢰한 상담소에 수사 진행을 문의함.
- ▶ 피해자 상담·치유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사건접수와 진행의 필요성에 대해 알린 뒤 당사자와 보호자의 협조를 유도함.
- ▶ 피해 정도에 따라 심리·정서 지원을 제공하거나 트라우마가 심할 경우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제공함.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의 피해로 충격받은 보호자까지도 지속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를 제공함.
-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편견과 낙인임. 이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비난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 친구 등 학교 구성원과 일반인의 인식 변화가 요구됨.
- ▶ 아동·청소년 안전과 권익옹호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교육기관과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성착취 피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
- ▶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지원은 기존 신체적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새로운 양상의 피해에 직면한 이들 기관이 시급히 개선할 과제는 종사자들이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는 것임. 그러나, 종사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익숙하지 않고, 온라인 그루밍이나 성착취 특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피해자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강화 교육도 병행해야 함.
- ▶ 현재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부재함. 기존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지원하는 기관이 영상물 삭제지원기관과 협력하며 일을 진행하고 있음. 기관 간 협력과 연계는 개별 종사자 의향과 역량에 의존하고 있음. 각 기관의 피해자 지원 자원과 역량에 대한 정보가 전국적 차원에서 공유되어야 함.

3. 정책제언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 ▶ 온라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는 심리지원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의료지원, 법률지원, 진로지도, 멘토지원, 대안학교 연계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가 필요함.
- ▶ 삭제 지원기관이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중앙부처는 기관 간 소통을 원활하게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삭제지원 기관이 내담자를 위해 후속 연계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 온라인 성착취 피해 지원 중점기관 설치
- ▶ 피해자 지원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한데, ① 기존 성폭력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 중 아동·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중점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산과 인력을 추가하는 방법, ②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소통방식이나 성착취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구성된 성폭력상담소를 신설하여 피해자 지원에 있어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③ 디지털범죄피해지원센터에 상담·치유 및 수사·법률 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 ▶ 피해자 지원 표준 가이드라인 제공



교사 등 아동·청소년 관련자의 교육

- ▶ 이들이 온라인 성착취 및 그루밍 범죄의 특성, 2차 가해 예방 방안,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숙지하게 함.
- ▶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사 대상 인식교육을 실시함.



부모상담 및 보호자 대리인 지정

- ▶ 부모에 대한 상담 확대로 피해 자녀 치유에 도움을 제공함.
- ▶ 부모가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지 못할 경우 보호자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을 제도화함.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관련

- ▶ 안전한 온라인 성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온라인 청소년 써포터즈 양성, 온라인 신고제도 활성화
- ▶ 학교차원의 디지털 성폭력 방지 캠페인 전개
- ▶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꾸준한 교육
- ▶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도 학교 성교육과 같이 인접 과목과 연계하여 교육
- ▶ 안전하고 성평등한 디지털 성문화 형성과 이의 실현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참여에 초점을 둔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 예방교육에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내용 포함



성착취 피해자 상담 관련

- ▶ 위기 지원과 병행하는 상담지원의 확대
- ▶ 일상회복 지원의 중점
- ▶ 심리적 안정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의 확대

참고자료

- 윤정숙·이태현·김현숙(2019).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미정·윤덕경·정수연·유경희·김영란 (2020).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지원 개선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세계일보(2020.05.14.). 평범했던 대학생의 민낯… n번방 만든 문형욱, 대구 여고생 부모 협박까지. <http://www.segye.com/content/html/2020/05/14/20200514504508.html> (2020.09.16. 검색).
- 국민일보(2020.05.21.). [‘n번방’ 밖으로 ②] 두 번은 없어야 한다 “성매매 유입 미성년자에 피의자 아닌 피해자 지위 부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9049&code=11131> (2020.09.16. 검색).
- 경향신문(2020.04.25.). 권주리 “사회는 ‘진짜 피해자’ 프레임으로 범죄와 피해아동을 방치했다”[플랫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50957001&code=940100 (2020.09.16. 검색).
- 국민일보(2015.03.27.). 서울 모텔 의문의 피살 여성은 14세 가출 여중생.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281646&code=61121211&cp=nv> (2020.09.16. 검색).
- 중앙일보(2020.04.05.). [밀실]n번방 피해자 “선물 보낼 주소 달라더니 지옥 시작됐다”. <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342006> (2020.09.16. 검색).
- 세계일보(2020.03.23.). [단독] 초등생까지 표적 삼아 성범죄 마수 뺨은 ‘n번방 그놈’. <http://www.segye.com/content/html/2020/03/23/20200323516152.html> (2020.09.16. 검색).
- 경향신문(2020.04.02.). [n번방 수사]익명 보장 ‘채팅 앱’, 청소년 노린 성범죄자들의 ‘사냥터’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20600055&code=940100 (2020.09.16. 검색).
- 세계일보(2019.07.07.). 외로운 아이들 채팅앱으로 유혹 친밀감 쌓은 뒤 성착취 [심층기획].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9/07/07/20190707506547.html> (2020.09.16. 검색).
- 한겨레(2019.06.24.). “엄마한테 말하지마” 청소년 노리는 마수 ‘온라인 그루밍’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99011.html> (2020.09.16. 검색).
- 노컷뉴스(2016.05.13.). “떡볶이가 성매매 화대라니…지적장에 내딸 어쩌나” CBS 김현정의 뉴스쇼 <https://www.nocutnews.co.kr/news/4592581> (2020.09.16. 검색).
- 내일신문(2020.04.17.). [기획 : 21대국회, 미성년자 성착취 막을 3대 입법 시급] 아동 성매수 91%가 온라인 통해, 안전장치 없어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47118 (2020.09.16. 검색).
- 한겨레(2019.11.25.).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① 피해자 심층 인터뷰/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영상 “알바 모집” 속아 ‘노예’가 되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18321.html> (2020.09.16. 검색).
- 노컷뉴스(2020.09.25.). ‘n번방 성착취물 제작’ 안승진 징역 20년 구형. <https://www.nocutnews.co.kr/news/5419461> (2020.09.16. 검색).
- 국민일보(2020.03.09.). [n번방 추적기①]텔레그램에 강간노예들이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print.asp?arcid=0014327469> (2020.09.16. 검색).
- 중앙일보(2020.05.07.). 구속된 조주빈 공범들, 평균 23.8세…이들은 왜 성범죄에 빠졌나. <https://news.joins.com/article/23771015#none> (2020.09.16. 검색).
- 한겨레(2020.05.11.). 공범 모집해 뒤에서 성착취 조종…n번방 개설자 ‘갓갓’은 누구인가. <http://www.hani.co.kr/arti/PRINT/944430.html> (2020.09.16. 검색).
- 뉴스시스(2019.12.2.).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온·오프 통합지원…상담·소송·수사동행. (2020.10.6. 검색). https://newsis.com/view/?id=NISX20191202_0000847046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관계부처: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